

“혁신경쟁으로 정권창출·호남정치 복원하라”

뉴스초점

야권재편...호남민심의 요구는

호남발(發) 야권재편 흐름이 내년 총선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야권 재편의 흐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가 진원지다. 광주 민심은 강력한 변화 없이 총선 승리도, 정권 창출도 어렵다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당내 패권주의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통합의 비전 제시에 실패하자 강력한 야권 재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 강력한 변화 없이 승리 없다” 총선 판 흔들기

계파 패권주의 탈피, 신당 세력 통합해 비전 보여줘야

이러한 광주 민심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견인하고 신당 바람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광주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다. 당장, 박주선·김동철·임내현 의원의 탈당에 이어 장병완·권은희·박해자 의원의 탈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의 8명 국회의원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은 강기정 의원 단 1명만 남은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에서 시작된 야권 재편의 흐름은 전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주승용 전 수석 최고위원이 조만간 탈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1월 중순 무렵에는 전남지역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연쇄 탈당도 가시화되고 있다. 호남 민심에서 출발한 야권 재편 바람은 전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복상하고 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수도권 비주류 의원

들의 탈당이 예고되면서 새정치연합의 분당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 승부 등 내년 총선 구도에 결정력이 강한 호남 민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야권 재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신당 세력의 가치와 비전을 주시하고 있다. 신당 세력들이 통합의 흐름보다는 독자 창당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벌써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신당 세력마저 수도권, 기독교, 패권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도 아니다. 호남 민심의 야권 재편 흐름은 다른 한편으로 새정치연합에 패권주의 정산 등을 통한 승리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새정치연합과 신당 세력 모두에게 혁신 경쟁을 통한 정권 창출의 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당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호남 민심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지만 아직은 아직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호남 민심은 호남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

적 과제와 정권재창출의 과업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호남 정치를 이번 야권 재편 과정에서 다시 구현하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민심은 새정치연합 탈당과 함께 안철수 신당으로 탈락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호남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야권 재편을 주도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과 야권 신당의 혁신경쟁과 정권 창출 비전을 주시하며 내년 설을 기점으로 지지 여부를 결정, 야권의 지형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의 고비마다 올바른 시대적 변화를 주도한 호남 민심이 야권 재편의 정국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한 달

흥행 ‘합격점’·비전 제시 ‘글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로 공식개관 한 달을 맞았다. ‘창조와 교류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 문화전당은 ‘흥행’에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지만 광주에 문화산업을 싹 틔우는 기관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공식개관 이후 23일 현재 모두 23만 9970명이 문화전당 4개원(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을 관람했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객은 6만 9871명,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입장객은 17만 692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람객 측면에서는 문화전당이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들이 호응한 것은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관 콘텐츠로 선보이고 인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개념 컨템포러리 공연물을 무대에 올린 예술극장은 마니아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특히 어린이문화원은 4개원 가운데

가장 많은 6만 8880명이 관람, 인기를 반영했다. 다음으로 문화정보원(6만 2565명), 예술극장(5만 7406명) 순이었다. 어린이문화원은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어린이 뮤지컬, 영·유아 베이비 드라마 등 공연물을 무대에 올리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운영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문화창조원은 문화전당 4개원 가운데 가장 적은 5만 1123명의 관람인원을 기록했다.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테크놀로지를 선보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나, 관람객들의 선호도는 갈렸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의 지역산업 기여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화창조원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전시가 계획된 장르가 대부분 특정 시각예술(미디어 아트) 위주여서 실제 문화콘텐츠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공연 제작과 관람 등에 지역 예술인들을 적극 끌어들이는 방안 마련도 과제로 지적됐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문화전당은 것 태어나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단계적인 성장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자체성장 동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어린이 산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시 북구 증흥어린이집에서 산타 복장을 한 원생들이 촛불을 들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젯밤 우리집에 산타할아버지 오셨어요”

광주 상무2동 70명 ‘몰래산타’

저소득 가정 40곳 돌며 선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일곱 살 영민이 집에 산타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빨간 옷차림에 얼굴엔 흰 수염이 난 산타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90)랑 단둘이 사는 영민이 집을 찾아왔다. 처음 산타할아버지를 마주한 영민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산타할아버지는 선물꾸러미에서 장난감 경찰차를 꺼내 선물로 줬다. “영민이가 씩씩하게 커서 다음에 꼭 경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해줬다. 책에서 본 것처럼 산타할아버지는 영민이가 갖고 싶었던 선물도, 장래 꿈도 속속 차림에 얼굴엔 흰 수염이 난 산타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90)랑 단둘이 사는 영민이 집을 찾아왔다. 처음 산타할아버지를 마주한 영민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민이는 마냥 신났다. 24일 밤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웃들이 산타할아버지로 변신했다. 광주시 상무2동에 사는 여고생, 회사원, 상인 등 주민 70여명은 이날 밤 관내 40가구를 돌며 7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사했다. 흰 수염과 빨간 옷 차림을 한 산타할아버지가 캐럴을 불러주고 아이가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건넬 때마다 집에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무2동은 전체 주민 2만 3000명 가운데 41%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다. 마을 주민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평소 누리지 못하고 살던 어린이들이 이날 하루 만이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다. 몰래 산타 봉사자는 지난 9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통해 모집했고, 아이들이 받고 싶은 장난감과 사연은 마을 곳곳에 설치한 ‘루돌프 우체통’을 통해 사전에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 번째, 선물!
농성지역주택조합 상록회관
설립인가 완료 2015.11.20

주택홍보관 OPEN중

잔여세대 모집 마감 임박!
도시계획자문 통과

농성동 SK VIEW
(시공예정사)

환경재무부 단지공명화	중도금 무이자	단지외 연계 빛골공원
-------------	---------	-------------

광주의 중심에서 행복한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SPECIAL Vision	2014년 이후 신규개발 중단. 구도심 개발 위주로 프리미엄 기대효과 증대. 기아자동차 안동지역으로 선호도 향상
SPECIAL Location	농성역 인접 / 500m 이내 유스퀘어, 서구청 등 권역서 위치 / 1km 이내 상무중상권. 아파트가 위치하여 지역내 거주 선호도 최상위 지역
SPECIAL Education	광주서초·광천초, 서석중고, 서석고교, 광덕중고, 광덕고교, 광주여고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지역의 교육환경 상층예상
SPECIAL Culture	주변지역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및 편의시설과 미술관, 도서관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인프라 풍부
SPECIAL Green	상록회관 인근 빛골공원과 우수한 녹지시설 등이 있어 문화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여유로운 친환경 삶을 누릴 수 있는 명품 파크

중소형 고층 명품아파트 74-A B / 84-A B

문의 062-529-1000

주택홍보관 및 현장